

‘10년 만의 귀환’ 오세훈 “서울, 오늘부터 다시 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중앙당사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당선 이 확실시되자 꽃다발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이종원 대기자

47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로 10년 만에 서울시장 자리에 복귀한 오세훈 시장이 “다시 뛰는 서울”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8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오 시장은 보선에서 279만8788표(57.50%)를 얻어 190만7336표(39.18%)를 얻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오 후보는 참배 이후 방명록에 큰 글씨로 “다시 뛰는 서울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라고 썼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서울시민 여러분을 잘 보듬고 행기는 그런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시장으로 출근한 오 시장은 1층 로비에서 “첫 출근을 환영해주는 여러분을 보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오늘부터 서울시는 다시 뛰겠다”고 말했다. 이어 “옛날 근무할 때 일을 많이 시켰다고

현충원 참배 이후 서울시청에 첫 출근... “솔선수범할 것” 서울시의회 방문 협조 요청... “지지 없으면 어려운 상황” 興 경고 메시지... “그간 보여왔던 불통과 아집 넣어둬야”

걱정한다더라.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하며 웃음 지은 뒤 “솔선수범해 어려움에 처한 코로나 경제난 등을 어떻게든 도움 드리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임기 1년 보궐선거로 당선됐지만 최선을 다해 그동안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여러분 노력으로 바뀌어나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6층 시장 집무실에서 9개월간 시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서정협 행정1부시장으로부터 사무 인계·인수 서를 받고 서명을 했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협

조를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109석 중 101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을 축하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민주당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으면서도 정쟁적 대립관계는 지양하고, 서울의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할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나서 시정의 빠른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만 권토중래(捲土重來)해 돌아온 만큼 과거의 실패에서 반면교사(反

面教師) 할 때 서울시가 진정한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간 보여왔던 불통과 아집은 넣어두고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동반자적 자세를 가지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오 시장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오 시장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만나 “이번 시장은 당적을 달리하고 제가 속한 정당이 워낙 소수 정당이라서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 어떤 일도 원활하게 되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털어놨다.

김기덕 부의장에게는 “예산을 안 주시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겠나.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의장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이어놓은 사업은 가급적 지켜주셔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불이익받지 않도록 자리를 지켜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김찬주 기자

1호 결제는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지원대책’ 박형준, ‘새로운 부산’ 강조

62.67% 득표로 압도적 승리... 총력사 참배로 공식업무 돌입 비대면 취임식... “변화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 보여 드릴 것”

박형준 신임 부산시장이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박 시장은 8일 부산 동래구 총력사를 참배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박 시장은 47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96만1576표(62.67%)를 얻어 52만8135표(34.42%)를 얻은 김영춘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두 후보간 표차는 43만3441표이며 득표율 격차는 28.25%p였다.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등이 박 시장의 총력사 참배에 동행했다. 박 시장은 방명록에 ‘부산의 나라 사랑, 역사적 긍지와 자존심을 지키고 계승하겠습니다’고 적었다.

이어 박 시장은 부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부산이 새로운 혁신

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박 시장은 부산시청으로 출근해 비대면 온라인 취임식을 가졌다. 그는 “고향인 부산에서 봉사할 기회를 얻어 큰 영광이다”며 “부산에 새로운 변화를 일구려는 시민의 역사적 명령을 받고 엄중한 역사의 무게를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도시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 행복, 다시 태어나도 또 부산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미래를 만들겠다”며 “산업화의 주축, 민주화의 성지인 부산을 행복 지수가 높은 세계 선진도시로 만들겠다. 이를 위해 삶의 질을 높이며 경제를 일으키고 시정에 공정·신뢰의 가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시장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초당적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시정은 축

적의 성과이며 긍정적 축적물은 계승해야 한다”며 “전임 시장이 추진하는 일을 무조건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부산 미래운명을 좌우할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과제에 초당적 협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시장은 “1년 3개월이라는 짧은 임기지만 새로운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며 “혁신의 물결을 일으켜 위대한 부산시민과 함께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취임식을 마무리한 박 시장은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인수인계서에 서명하고 곧바로 업무 보고를 받고 당면 현안 등을 결재했다. 박 시장이 1호로 결제한 현안은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지원대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규모를 1000억원 더 보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동백전 발행규모를 최대 2조원까지 늘리는 것이 골자다. 부산시는 이번 결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 긴급 재정지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어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박형준 시장이 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받고 환하게 웃고 있다. 뉴스부산

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용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 임차료 자금을 기존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증액해 1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또 특별자금 상환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한대의 기자

‘명품 조연’ 안철수 “野 대통합” 강조

“야권 승리 아닌 민주당 패배... 국민의힘과 합당은 시간 필요”

47재보궐선거(재보선)에서 광복행보를 전개하며 국민의힘의 승리에 일조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대통합을 강조했다. 야권 서울시장 단일후보 경선 당시 약속했던 국민의힘과 합당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보선과 관련해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위선, 오만·독선, 도덕적 파탄에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셨다”며 “민주당의 패배는 연승에 취해 민심 앞에 교만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고 밝혔다. 이어 “야권의 승리라기보다 민주당의 패배다”며 “야권은 이 점을 직시하고 더욱 겸손하게 민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대표는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대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다”며 “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심의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야권의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

했다. 안 대표는 △혁신 △대통합 △미래준비 △대한민국 변혁의 책임 등을 제시하며 “이 네 단어를 야권의 핵심가치로 삼아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야당,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권 대안세력의 모습을 보여드릴 때만이 대선 승리도, 대한민국의 정상화도 가능할 것이다”고 전했다.

야권 대통합을 강조한 안 대표는 국민의힘과 통합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국에 여러 당원분들이 계신다”며 “가능하면 그 당원분들을 직접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만나 뵙고 현장의 목소리부터 듣는 것이 우선이라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며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등에 대해 조율하고 의견을 모으고 결정하는 그 과정 동안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그런 과정을 거쳐겠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김찬주 기자

aT가 함께 합니다

지속가능한 우리 농어업!
잘사는 우리 농어업인!

국민의 내일을 위한 aT혁신
보다나온 우리 농식품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대표전화 061-931-1114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